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household tasks of dual income families

- Focusing on familie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광주대학교 가족복지전공
부 교수 김 선 미*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조 교수 장 상·옥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im, Seonm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ang, Sangok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II. 맞벌이 부부의 생활모습과 가사노동 |
|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 IV.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labors that are performed by dual income families. The methodology that has been applied in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a total of 10 people(8 housewives, 2 husbands) selected from the 8 different families. The 8 different families have been sele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different family lives and the various household labor patterns that are conducted by both the working husband and the working wife. As a result, we have found out that working wives still had to manage their time in an extremely busy manner in order to balance their professional work with their household tasks. However, the household work that was being shared by the husbands also seemed to vary dynamically according to the different family

* 주저자 :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situations. Although, it has shown that household tasks are divided by the person's sex, the amount of household tasks that are shared tended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each family.

Key Words : 맞벌이 가족(dual income families), 가사노동(household labor/housework), 가사노동분담(sharing of housework)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도 대체될 수 없는 필수적인 가사노동은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다하더라도 여전히 가정 내에서 중요한 일로서 수행되고 있다(클레어 비커리 브라운, 1991). 화폐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시간을 시장노동에 더 많이 할당하는 맞벌이 부부도 가사노동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노동이며, 그에 따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제약이 큰 맞벌이부부에게 가사노동은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 동안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을 다루는 연구 가운데에는 취업여성의 역할과중의 해소에 관련된 주제 혹은 부부간 가사분담과 관련된 주제를 상정하고 수행된 양적 연구(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 1997; 조희금, 1998; 유희숙, 두경자, 1999; 채로, 이기영, 2004)가 주류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 편으로는 취업주부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어떻게 역할과중을 느끼며 또 어떻게 해소하는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남편들의 가사분담의 정도와 가사노동영역의 성격이 상당히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규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연구에서는 측정 방법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이하여 양적인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일례

로 문숙재, 조성은(1995)은 질문지에 사용된 개념차이로 연구 결과의 오류를 낳을 수 있어 실제보다 질문지 조사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낮추게 되어 이들의 가사노동참여가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므로 질적 연구를 통한 가사노동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맞벌이가정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결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을 취할 때 당사자가 처한 맥락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반응하며 그 속에 어떤 해석이 들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이 자신만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행위성(agency, 김창대, 2004:20)을 발견할 수 있으며, 행위당사자간 공통성과 차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속에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연구에서 보다 바람직한 질적 연구방법이라면 흑실드(2001)가 12년 동안 맞벌이 부부의 삶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참여관찰과 면접이며 또 가정을 단위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내 맞벌이가정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의 시도차원에서 맞벌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주요 책임자인 아내의 시각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일가정을 양립하기로 한 가정에서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설계 조정해

나가는가? 특히 가사노동을 어떻게 수행하며, 그 속에서 어떤 종류의 보람과 고뇌를 느끼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물음으로써 시작된다. 최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맞벌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가사노동과 관련된 주요테마는 자료의 수집 후 분석과정에서 도출하기로 하였다.

II.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연구방법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로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자녀를 기르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아내를 대상으로 삼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살펴보는 이유는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한국여성개발원, 2002) 결혼 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그 가정의 가사노동방식의 구조화된 측면 또는 그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화기술적 연구의 대표적 기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ethnographic interview)은 양적연구에서 하는 질문의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한 닫힌 형태의 구조적 면접과는 구별된다. 구조적 면접의 경우 풍부하고 다양한 답변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답변의 의도와 깊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단점을 가진 반면에, 심층면접은 자신이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 이외의 변수는 연구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변수를 선불리 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포착하려고 한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현상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하지만 현상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므로 통계적 사실과 개별적 진실의 불일치는 불가피하게 된다.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통계적 분석은 조사대상의 일부특성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수량화하는 데서 초래되는 생태학적 오류를 피할 수 없는(조용환, 2005) 점을 질적 연구는 보완해줄 수 있어 가사노동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집단의 성격이 잘 알려지지 않은 표본에 대해 연구자는 임의표본 추출하여 개별적인 소수 사례에 접근하였는데, 연구자의 질문에 기꺼이 응답해주고 토속적인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주로 인터뷰는 낮 시간동안 제보자의 직장에서 이루어졌는데, 퇴근 이후 제보자의 가정 혹은 연구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특히 제보자의 가정에서 면접한 경우에는 남편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가정환경에 관한 간단한 관찰이 가능했지만, 제보자들 가운데에는 시간내기가 직장이 더 수월하고 또 집을 치우고 연구자를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두 연구자가 각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광주에 네 가정 그리고 진주의 네 가정을 합해 모두 여덟 사례를 분석하였다. 단 가사분담비율이 높은 두 사례의 경우 남편을 다시 심층 면접하여 연구대상의 수로 보면 총 열 명의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자는 면접의 질문을 공유하고 한 사례의 면접이 끝날 때마다 대상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교환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질문에 대해 토의하였다. 녹음기로 녹취된 면접 자료는 전사(全寫)하였으며 A4용지로 총 300쪽의 분량에 이른다.

질문은 결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도록 한 후 확인질문 혹은 반대질문 등으로 답변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은 답변의 범위를 제한 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최대한 회피하였다. 녹취자료의 분석결과 제보자가 이야기를 주도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이 최초의 주제가 되기 쉬웠으며 가사분담을 놓고 남편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나 남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직장에서의 경험보다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수렴되어 갔으며, 재무관리나 소비지출과 같은 부분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보충 질문하였다.

2. 연구대상

자녀들의 연령을 제한한 결과 제보자들의

연령은 30세부터 40세까지로 드러났다. 자녀 수는 여섯 사례가 두 명이었는데 세 자녀와 한 자녀를 둔 사례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수와 여성의 일이 관련 되는 방식으로서 세 명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벌려면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며, 한 명인 경우는 일 때문에 한 명밖에 낳지 못해 몹시 아쉬우며 특히 한 아이에게 형제를 갖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직업별로 보면 두 명의 중학교 교사와 두 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교 사무직원과 민간단체 실무자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야쿠르트 아줌마 즉 판매직이 각각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 E 씨와 G 씨의 남편과의 면접내

<표 1> 제보자의 특성

제보자 (나이) 거주지	직업	남편	자녀	집	월 소득
A (40세) 광주	법원 기능직 (총16년, 결혼 후 15년째)	42세 법원 일반직	아들(14세, 중1) 딸(11세, 초4) 딸(7세, 유치원)	48평 아파트 (방 4, 욕실 2)	500만원
B (36세) 광주	대학교 사무직원 (총18년, 결혼 후 9년째)	40세 시청 공무원	아들(8세, 초1) 아들(6세, 미술학원 중일반)	29평 아파트 (방 2, 욕실 1)	450만원
C (35세) 광주	시민단체 상근실무자 (총 9년, 결혼 후 8년째)	38세 준공무원(건강 보험관리공단)	아들(8세, 초1)	29평 아파트 (방 2, 욕실 1)	300만원
D (40세) 광주	한국야쿠르트아줌마 (자녀 “서너 살”부터)	43세, 토목 건축 하도급자	딸(12세, 초5) 아들(10세, 초2)	32평 아파트 (방 4, 욕실 2)	350만원 (들쪽날쪽)
E (30세) 진주	학원운영(남편과 공동운영, 결혼 후 10년째)	38세 학원운영	아들(9세, 초2) 아들(4, 어린이집)	37평 병용주택 1층학원/2층 주택	400만원
F (39세) 진주	농촌생활지도사 (결혼 전 취업, 결혼 후 11년째)	42세 회사원	딸(12세, 초5) 아들(11세, 초4)	28평 아파트 (방 3, 욕실 1)	500만원
G (37세) 진주	중학교교사(결혼 전 취업, 결혼 후 7년째, 3년 휴직)	36세 판사	딸(8세, 초1) 딸(6세, 유치원)	25평아파트(판사) (방 3, 욕실 1)	800만원
H (34세) 진주	중학교교사 (결혼 전 취업, 결혼 후 9년째)	37세 중학교교사	딸(8세, 초1) 아들(7세, 유치원)	40평 아파트 (방 4, 욕실 2)	600만원

* E 씨의 남편과 G 씨의 남편도 연구대상에 포함됨.

용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제보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Ⅲ. 맞벌이 부부의 생활모습과 가사노동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연구대상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생활주기를 따라 나름대로의 생활양식을 갖춰 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의 체계를 갖추는 것과 가사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취업을 지속하겠다는 결론이 포함된다. 영 유아기 자녀의 양육 문제는 낮 동안 시간을 가정에 할애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공적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혹독한 문제로서 연구대상 가정에서 모두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을 했으나 양육과 관련된 주제는 따로 독립하여 다루기로 하고 이 논문에서는 맞벌이 가족 아내의 구술을 통해 당사자와 남편의 생활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각자의 생활이 가사노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내의 생활모습

1) 가정 밖 생활의 특성 ; 핸드폰을 손에 쥐고 먼저 직장과 관련된 맞벌이 주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자. 출근시간 스트레스와 자녀의 학교일, 혹은 주택수리 등과 관련한 근무시간 중 외출, 회식할 때 빠지거나 아니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기 등이 가족일과의 병행에 보편적으로 관련된다. 면접할 때 관찰한대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일하는 맞벌이 여성의 경우가 바로 직장과 가족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긴장감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제보자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휴가¹⁾와 휴직, 그리고 이동이 잦은 남편과 함께 가족 생활을 꾸리기 위한 휴직 등 휴직에 따른 직장에서의 부담이나 지체감(遲滯感)에 대해서도 토로하였다.

한 편 아내가 취업을 지속하는 원인으로는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고 윤택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 이유, 남편이 보증을 서서 생긴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보다 소극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길러낸 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인간발달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를 자신의 숙고 혹은 타인의 권고를 이유로 들어 취업지속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다른 한 편, 사회생활에 노출됨으로써 발전과 성장의 원리가 맞벌이 주부의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개인적 발전을 위한 취미활동(B 씨는 퇴근 후 오후 7시 경에 백화점 문화센터에 들러 주 1회 플루트를 배운다), 혹은 직장생활의 필수조건을 갖추기 위한 대학원진학과 같이 ‘자기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 밖 시간을 증가시키는 경우(C 씨, F 씨)도 있었다. 일단 부모가 없이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자녀들의 생활시간’을 토대로 가정 밖 활동을 확장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어린 자녀에게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사회활동을 하는 어머니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후자를 희생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 가정생활의 특성과 가사노동 ; 밖에 나가면 차라리 더 편해요.

맞벌이 가족 아내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이

1) 세 아이를 낳은 A 씨의 이야기에는 우리나라 출산휴가기간 연장의 역사와 성차별적 직장문화가 점차 완화되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야기를 대략 분석해 보면, 자녀 양육을 대신해 줄 사람 혹은 양육기관과 관련된 이야기, 낮 시간 동안의 자녀의 보호와 시간관리 상황 그리고 간식 챙기기, 초등학교의 어머니 참여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 잦은 출장으로 자녀들을 다른 곳에 맡기는 일 등이 직장생활과의 병행에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였다. 한 편 자신이 번 돈으로 자녀들의 교육에 금전을 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맞벌이 가족 아내는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자율적이었으나, 그러한 사교육에서도 부모 특히 어머니의 관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부재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녀를 대하는 자신의 특수한 태도에 대해서도 맞벌이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낮 시간동안 '애가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밤 시간에 보상하기 위해 아이를 혹사했다거나(A 씨는 아들을 붙잡고 새벽 1시까지 공부를 시킨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금전투자로 시킨 사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마가 관리·감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아이의 성장을 자세히 그리고 서서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지극히 사무적이라고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 편 남편과의 가사분담 이슈는 이러한 모든 일을 가로질러 맞벌이를 하는 아내의 가족생활과 연관되었다. 맞벌이라는 평등주의적 전제는 가사분담에 관한 여성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편의 변화 자체, 가사분담의 정도, 가사분담의 영역, 남편의 가사참여가 자녀의 가사참여로 이어짐, 그리고 남편의 가사참여로 인한 불편함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남편의 가사분담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몸이 약하다" 또는 "아프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기, 직접 혹은 자녀를 통해 남

편의 가사참여를 칭찬하기, 남편이 그 일을 잘 못 한다고 했을 때 못 들은 척 하기,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기 등- 취업주부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아내들이 보는 남편의 가사참여는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부터 거의 하지 않는다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성별분업방식-청소는 남성, 음식준비는 여성-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었으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해 포기함으로써 균형(equilibrium)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면접대상 맞벌이 가족의 어머니들은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양육에서 교육으로 관심이 전환하면서 직장에서도 가정으로 그 무게중심을 조금 더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내가 직장생활을 한들 애를 잘못 키우면 국가에나 나도 그렇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애한테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잠시 잠깐 휴가를 내고 쉬더라도 그게 나나 미래에 대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에 (자녀의 학교에서 참석할 일이 있으면)가려고 해요.(A 씨)

주말부부인 C 씨의 경우 실제로 자신의 직장스케줄을 변경하였는데, 주중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회식의 횟수와 시간을 줄여 참석하기, 혹은 남편이 와 있는 주말에 직장에 나가서 일을 몰아서 하기로 작심하고 실천하고 있다. 직장생활에서 회생을 최소화하고 자녀돌보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C 씨 네는 남편이 주중에 한 번 더 집에 와 애를 혼자 돌보는 방식으로 생활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시간계약이 큰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맞벌이 주부가 사용한 해결책들은 남편과의 분담이외에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방식, 자신의 수면욕을 거부하는 식의 금욕적 생활방식,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하는 방식, 아이들에게 분담시키기 위한 교육, 혹은 친척의 가사노동에 의존하는 방식, 기타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한 그릇에 비벼서 온 식구가 다같이 먹기’ 식으로 가사노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2. 남편의 생활모습

1)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의 가정생활모습

다른 것은 옷도 저희 남편이 다 다리거든요. 청소도 다 하거든요. 제가 하는 부분은 애들 챙기는 것. 약간의 일들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이 넘었으니까 셋째 낳으면서 가사분담도 틀이 좀 잡히는 거 같아요.....(A 씨)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본 남편의 생활모습에 남편의 직장생활 이야기는 없다. 다만 가족생활과의 접경부분에서 남편 승진을 중시하면서 가사노동의 분담요구를 줄여주거나 승진 준비로 인하여 가사분담이 적다면 양해한다고 한다.²⁾ 아내 대신 자녀의 학교에 가기 위해 휴가를 낸다거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한 경우는 없으며, 두 사람의 회식이 겹친 경우에도 아내가 양보하였다. 만약 남편이 술자리를 싫어하더라도 회식이 아내의 직장생활에서 가지는 의미보다 남편의 직장생활에서 가지는 의미가 더 크다는데 부부가 동의하고 있다.

아내가 회식할 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섞어 비빔밥을 하면서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아내가 평소에 가사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A 씨) 남편의 경우를 보면,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점³⁾ 그에 따라 시간제약이 큰 맞벌이 가족의 주부는 언제든지 비난을 받게 되어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의 회식 때 외식을 거부하고 손수 밥을 해서 먹이는 남편의 가정성(domesticity) 이데올로기는 ‘어린 자녀를 잠잘 때는 반드시 부모와 자야한다고 아이를 맡긴 친척집에서 데려와 결국은 아내에게 떠맡게 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아내가 가사를 잘 못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떠맡아 하고 있다”고 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저녁에 아이시중을 남편이 들고 또 남편이 아이를 재우고 있다.

가정을 보는 시각에 대한 아내의 평가를 보면, 남편은 가정을 휴식처로 생각하되 아내들은 또 다른 근무처로 보는데⁴⁾,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에게 가정이 휴식처라는 점에 의문을 품지 않는 점과 달리 취업주부는 휴식을 하는 남편을 곱게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제보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 선 순간 가시화되는 성별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 곧 휴식자세- 샤워, 소파에 누워 리모콘을 쥐고 TV보기,- 를 취하되 당사자들은 부엌으로 가서 가사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취업이라는 평등주의적 체험은 가정생활에서의 평등에 대해 지속적인 기대를 낳

2) A 씨는 남편이 밤늦도록 승진공부를 하고 일요일 오후에도 도서관에 승진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로 인해 세 자녀를 아침마다 혹은 일요일 오후에 도맡아 돌보게 되고 그 때문에 힘들지만 양해한다고 한다. B 씨도 통근거리가 너무 멀어 주중에 아무런 가사책임도 맞지 않는 남편이지만 승진의 티를 닦아놓은 현재 근무처에서 집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도록 종용하지 않는다.

3) 양적연구(유희숙, 두경자, 1999)에서도 취업주부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자이고 남편은 스스로 일을 알아서 하기 보다는 부인이 가사노동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만 응하는 소극적인 협력자라고 지적한다.

4) D 씨는 차라리 일하러 가면 마음이 편하다. 집에서 아프더라도 집을 나가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

는 듯하다. 그러나 가부장제이데올로기를 완전히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점에 이른 A 씨 같은 경우 “내가 일 할 때 옆에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2) 남편의 가사노동

(1) 다양한 참여방식과 변화의 과정

먼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평등주의적 시각에서 남편들의 저조한 가사분담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⁵⁾. 그 이유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도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으며 평면적으로 특정시기만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내보다 40분 늦게 일어나 씻지도 않고 바로 식탁에 앉는다는 구순자씨의 남편은 한 때 아내가 장거리 출퇴근을 할 때, 막내를 차에 태우고 아내를 통근버스에 내려주고 막내를 처가에 맡기고 와서 다시 남은 두 아이를 등교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부는 서로의 시간제약 상황에 따라 가사분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부장적 사고가 가사분담에서 결정적인 방해요인이며 남성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역사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시기의 집중적인 가사부담은 나중시기에 교환이 되기도 한다.⁶⁾ A 씨 남편은 현재 승진을 위해 밤공부를 하고 일요일오후에는 도

서관에 간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아이가 어렸을 때 잦은 출장과 늦은 귀가로 인해 남편이 양육을 도맡았던 C 씨 네는 지금은 주말 부부로 대부분의 양육책임이 아내에게 있다.

또한,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정도⁷⁾는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아내의 눈에 비친 남편들의 생활모습을 종합해서 볼 때, 가사노동에서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이 맞벌이 가족 남편들의 가사에 대한 태도라고 하겠다. D 씨 네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거의 없는 극단적인 사례였으며 그에 대해 D 씨는 불만이다. “도시의 생활에서 가사노동이 뭐 있냐? 나눠하면 금방 할 텐데, 여자 혼자하면 너무 힘들다. (남편은 자신이 벌써) 늙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D 씨 부부는 세 살 차이가 난다).” 라고 말하지만 D 씨의 남편은 건축하도급자로서 일주일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이며 육체노동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주변에는 너나 나나(남편과 아내) 구별이 없어요.”라는 F 씨의 이야기나, “같이 버는데 같이 일 해야지요.”라는 E 씨 남편의 이야기는 가사노동분담에서 상당한 평등성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기야 “점차 변해가서 지금은 아내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도맡아 한다.”는 H씨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합해 보면 그 스펙트럼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⁸⁾.

- 5) 최근의 대중매체 조사결과는 체계적인 과학적 자료도 아니고 또 실제에 관련된 자료도 아니지만 남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보여주고 있다. 현대백화점 유통연구소 조사결과 30-40대 남성 직장인(323명)의 88%가 집안일을 돕고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는 30%, 동등 가사 분담이 18%, 주말 또는 시간이 날 때 거든다는 40%, 거의 돕지 않는다는 12%이다(연합뉴스, 2005.5.1) 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전국 60개 초등학교 학생(197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빠가 가사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지 않다가 80.6%(동아일보, 2005.4.20)로 나타나는 등 남성의 가사분담 의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 6) 심층 면접을 통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은 한 시점에서의 측정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문숙재 외(1995)도 가사노동의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 7) 한주희(2005)의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전체 모집단을 표집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대상 가정에서 남편이 더 많은 가사일을 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가 23.3%, 반반 도와준다가 15.3% 그리고 가끔 도와준다가 58.7%로서 평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 8) 장상욱(2005)의 표2(95쪽)를 보면 제보자 가정별로 분담유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음과 더불어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짐작해 보자. 먼저 부부가 비교적 평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공동운영하거나 함께 부부교사인 경우로서 출퇴근 시간이나 직업에서의 부담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신랑이 일찍 오면 신랑이 하고 별 트러블 없이 지금도 몸에 배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저 같이 생각하는데요. 요즈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운 다는 것보다 같이 한다는 생각인데 신랑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H 씨).

한편, A 씨 네는 자녀수 증가에 수반한 가사부담으로 인해 남편의 참여가 요구되고 그에 따라 점차 그 참여범위와 정도가 확대된 경우인데 이들 부부 역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결혼해서 첫 애 낳았을 때는 남편이 별로 일을 안 도와줬어요. 당연히 나보고 하라고. 둘째, 셋째 낳으면서 점점 남자가 해가는 영역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둘째 낳을 때는 절대 부엌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설거지 좀 해주고 입덧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해 주고, 셋째 때는 옷도 다려 주고 이제는 세탁도 해 주고 다 해 주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제보자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가사노동참여의 변화과정에서는 시도와 체험축적이 중요하며 자신의 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도 알 수 있다. 맞벌이남편은 가사분담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사를 하는 것에 다소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아내가 취업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영역을 담당하게 되고, 이어서 점차 가사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을 보이는데 이를 H 씨 남편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지요. 남자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집사람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내가 설거지 해볼게’ 해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그게 또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청소 한번 해 볼게’ 해서 하게 되었지요. 나는 절대로 반찬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오빠, 두부 한번 썰어봐’ 하면 썬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배우게 되지요. 그러면 김치찌개하고, ‘찌개종류는 한번 끓여 볼게’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H 씨 남편).

보수적인 가정의 4녀 1남으로 자란 E 씨 남편의 경우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과 가사를 평등 분담하는 현실에 대해 다소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보인다. “남자애들은 로봇하고 자동차하고 가지고 놀고, 여자애들은 인형 같은 것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이 보통 관념인데 저희는 그걸 보고 배웠고, 그걸 보고 자랐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E 씨 또한 남편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댁에 가면 자신이 전적으로 일을 담당한다고 한다. “시골가면 시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다 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집안일을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 시어머님이 알면 노발대발하시겠지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것 하려고 장가 간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우리 나이 또래는 기본적으로 있지요. 그래, 없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갈등을 겪었지요.....남자가 속된 말로 ‘부엌에 들어가면 쪽 팔린다’(표준어: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요즈음에는 자연스러운 일이나니까”(E 씨 남편)

끝으로 이러한 변화에 작용하는 원인으로 A 씨 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힘든 아내에 대한 공감과 사랑 그리고 다른 가정의 좋은 본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신앙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

면서 가사노동을 하여 아내를 도와주고 있다. 정말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것도 크다"라고 한다.

그런데 책임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내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평가에서 핵심이었다. 아내들은 가사에 대한 책임감의 공유를 원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지만(B 씨: "시키면 다한다." G 씨: "도움을 청할 때만 도와준다.") 책임을 떠맡는 남편은 소수이다(E씨 남편, H 씨의 남편). 책임감을 공유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의 바깥생활에 대한 지지 혹은 가정 내 가사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가사노동을 도와준다는 관념이 지배적인 남편들의 경우 '가사노동 안하는 가상적인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나만큼 도와주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의 이야기에 따라 남편이 자녀와 가지는 가족생활의 모습을 보면, 아들이 쉬는 날 함께 산에 간다거나 주 중에 2회 정도 아이들과 대청소를 하고 또 아내가 직장일로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경우 '편치히터'로 돌보는 경우로 그려진다. "해결은 해 줘요. 해결은.....(F 씨)" 아버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훨씬 쉽게 자녀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맞벌이 가정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하며 그 결과 남편들 사이에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변화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면접대상 아내들은 이러한 남편의 가사 분담이 주부가 직업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남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직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E 씨).

(2) 남편의 가사노동 영역 ; 분담 속의 성별 분업
가사노동의 특성상 어떤 식의 분담이 공평한가, 공평한 분담이 최선인가는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과 비교적 평등하게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E 씨와 H 씨 가정의 경우는 부부가 거의 모든 영역의 가사를 분담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다.

육아, 세탁, 다림질, 청소, 음식 만들기 하고.....음식물쓰레기는 제 전담입니다. 싱크대에 음식 쓰레기 털어서 요만한 통을 놓고, 건져다 부어놓고, 냄새가 많이 나므로 그 날 그 날 부어버리죠. 싱크대 바로 옆에 두고.(H 씨 남편) 내가 설거지를 하면 신랑이 옷을 개킨다든지, 제가 젖병을 물린다든지 하면 신랑이 청소를 한다든지.....안하는 가사는 거의 없는데요.(H 씨) 닥치는 대로 많이 합니다. 요리도 하고.....(E 씨 남편)

그러나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하는 두 사례를 제외하고 가사노동 분담내용을 보면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거의 모든 남편들이 하는 가사는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설거지, 세탁기빨래인 반면 잘 안하거나 어려워하는 가사는 조리, 손빨래, 다림질, 걸레로 바닥 닦기 등이다.9) 조리의 경우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고, 다림질은 바닥에 앉아 좌식 다리미판을 놓고 다리면 한 면을 다리고 나면 다른 부분에 주름이 저서 어려우며 또 엮드려서 하는

9)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를 조사한 조희금(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영역은 시장, 은행일보기, 빨래 및 의생활관리 영역이라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연구에서는 남편들이 하는 가사노동영역의 이면에 내재된 문제-예를 들면 하지 않는 이유나 갈등과 같은 심리적 측면 등-를 밝혀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걸레질이나 손빨래의 경우는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러야 하는 신체상의 불편을 이유로 들고 있다. 채옥희(2002)는 남편들이 허리가 아프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이나 거실 등의 청소를 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기구나 설비의 과학화를 통하여 남성의 가사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입식다리미대나 서서 일할 수 있는 편한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남편의 가사참여를 이끌어 낼 수도 있겠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박혜경(2004:194)은 남성이 주로 하는 청소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미루었다가 해도 되는 일인데 비해 여성이 주로 하는 음식준비는 하루에도 세 끼를 신경 써야 하고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F 씨 네는 빨래와 청소는 전적으로 남편이 그리고 아이 키우기는 전적으로 아내가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F 씨는 남편이 30%-40%만 실행한다고 평가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F 씨의 남편은 안과 밖을 구분하여 밖의 일은 가족 관련되는 일도 도맡아 한다. 이를테면 학교 운동회 참여, 학교에 애들이 빠뜨리고 간 준비물 가져다주기, 야외 나가 고기 굽기 등이 그 예이다.

IV. 논의

요컨대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은 그야말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아내는 여전히 이중 부담을 수행하기 위해 직장에서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가정일을 원격조정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족한 시간 제약 하에서 자녀를 돌보고 일상적인 가사를 처리하기 위해 분주하고 복잡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은 발전의 논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또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자녀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야 한다는 때로는 상충되는 상황에서 길을 찾아가고 자 한다.

그런가 하면 남성들은 가정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자신의 자발적 각성에 의해서 혹은 아내의 강권으로 가사에 점점 참여해 가고 있다. 흑실드의 분석에서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아내의 화폐소득에 대한 필요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남편이 가사분담을 더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남성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면접이 주가 아니어서 이러한 변수를 직접 탐색할 수는 없었으며, ‘아내의 발전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혹은 다른 가정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고 그리고 아내가 가사노동을 잘 못 하므로’ 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은 엿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사노동을 남편이 하지 않을 경우 아내의 취업지속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극단적인 정도로까지 자녀양육과 같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를 보면 흑실드의 결론이 간접적으로 지지된다.

이렇게 본다면, 느리게 변화하지만 증가하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향후 지속되리라 전망된다. 그러나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남편의 가사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개별가정 차원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국가차원에서는 자녀 양육시설 확충 및 양육비 보조 등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갈등하는 어머니와 가사분담에 저항하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의 경우 필요한 부모의 돌봄노동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남편의 가사분담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열쇠라고 한다면, 가사참

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함한희(2005)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가사분담을 하기 어려운 이유를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남녀의 취업불균형, 사회화 과정에서의 구별되는 남녀 성역할의 인식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남성의 경우에도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가부장적 성역할이테올로기는 작용하고 있다. 본 사례분석에서 보면, 성역할이테올로기는 현재 맞벌이 가정에서 서서히 허물어져 감을 보았다. 그러나 남성들의 직업세계에서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는 공적 세계의 조정이 있어야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사회가 임금소득의 획득을 통한 남녀 공동부양을 전제로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하였으나, 가정에서의 자녀와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남녀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고 돌보아야 하는 권리와 책임¹⁰⁾을 전제로 하는 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시간 근로나 회식 또는 출장 원거리 발령과 같은 관행이 돌봄노동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혹실드(2001:329-346)도 맞벌이로 인해 자녀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 부부가 다 '집안 일'을 우선시할 것과 공적으로는 보육정책이나 국가의 지원정책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화를 포함한 공공정책이 마련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돌봄사회의 가치가 강조되고 사회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돌봄노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남편들의 가사참여는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며 평등주의에 입각한 비난은 남성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노동에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동일한 전제 위에서는 여성들의 직업세계에서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여성들의 가사참여 또한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그에 따라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시간을 들일 수 없게 되며, 부모들의 시간을 대체하는 사적 시장은 팽창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의 확보와 합당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간생활의 가치와 근본적인 목표에 관련된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근거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양적 연구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맞벌이 아내와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가정을 양립하면서 가사노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조정하는지, 아내는 남편의 가사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남편은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서 가사노동에 참여하게 되는지, 또한 가사노동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맞벌이 부부의 보람과 고뇌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을 심층 면접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비교적 높고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인데 이 차이는 시간의 경과 및 면접대상 선정에 의한 변화인지, 연구방법 상에 의한 것인지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 및 계층을 달리한 다양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양적,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변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0) 돌봄노동의 포괄적 의미에는 "어린이나 성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지원행위"(김혜경, 2004 : 76에서 재인용)

【참 고 문 헌】

- 1) 김창대(2004). 대상관계. 2004 하계 제 1차 한국아동학회 아동상담사 워크샵자료집, 19-33
- 2) 김혜경(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 쟁점”, 『한국여성학』 20(2).
- 3) 박혜경(2004).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여성학강의. 동녘, 184-209.
- 4) 배리 소운 매릴린 알롬 엠틀, 권오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 옮김(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 5) 문숙재, 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49
- 6) 유희숙, 두경자(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23-134
- 7) 이기영, 이연숙, 김외숙, 조희금(1997).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97-108
- 8) 장상옥(2005).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남편의 가사공간에 관한 연구. 2005 한국가정관리학회 37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89-115
- 9) 조용환(2005).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10)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 11) 채로,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 12) 채옥희(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 13)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흑실드, 알리 러셀 저(2002, 백영미 번역).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이야기;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아침이슬